

담양군 무정면 지사협, '장수사진 촬영' 행사

어르신 24명 모시고 예쁜모습 사진첩에 담아

고운모습 액자 담아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 예정

담양 무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최근 무정면 관내 어르신 24명을 모시고 예쁜모습을 사진첩에 남기는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장수사진 촬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추천을 받아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담양군미용봉사회 권창희 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머

리손질 등 분장을 도와드렸다. 생전의 고운신 모습을 담고자 정성을 다해 촬영한 사진은 액자에 담아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김동중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오래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했다”며, “이번 봉사가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김윤철 무정면장은 “뜻깊은 사진 촬영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에 놓인 이웃이 없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중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직업재활, 운동요법, 체험학습, 요리실습, 음악·미술 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의 심신 안정화와 사회기술 능력을 증진시켜 정신질환 만성화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보훈가족 후원

주택 개보수 추진 사업

광주지방보훈청은 최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보훈가족 행복하우스 56~57호' 가구를 방문하여 기념명판 전달 등 위로·격려하였다.

'보훈가족 행복하우스'는 광주지방보훈청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가족의 주택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후원(600만원 상당)으로 보훈가족 2가구에 대해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해 드렸다. 주택개보수를 통해 산뜻해진 주거환경

에 대해, 유○○(광주 북구) 보훈가족은 광주지방보훈청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임종배 청장은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에도 광주·전남 보훈가족 150여 가구에 위문(1,200만원 상당) 하는 등 보훈가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장애학생 방학중 돌봄, 학기중 처럼 해야”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9일 장애학생 방학 중 돌봄과 관련, “학기 중 실시하는 돌봄교실이 방학 중에도 단절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교사노조는 “광주시교육청이 장애 학생 방학중 돌봄 운영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며 “2010년부터 장애학생 방학중 돌봄을 수탁해서 운영해 온 광주장

애인부모연대가 3년 전부터 수탁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는 “현재 특수학교 학기중 돌봄은 정규수업이 끝난 시각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 시설을 이용, 실시하고 있다. 반면 방학중에는 돌봄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제14차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칼같이 서비스 제공

곡성군이 최근 목사동면 공북마을에서 2021년도 14차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7월 5일부터 8일 새벽까지 폭우가 지속 되면서 기동서비스가 중단될 뻔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오전에 비가 그쳐서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을 운영할 수 있었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이 운영된다는 소식에 밤에 나가있던 마을주민들은 너무나 할 것 없이 칼, 낫, 호미 등을 마을회관 앞



으로 가져왔다.

곡성하늘빛교회 자원봉사자들은 구슬땀을 흘려가며 칼같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곡성=양혜영기자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 저소득 가정 꾸러미 전달

생활품 꾸러미 지원사업 실시

장흥군과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최근 저소득층 희망사다리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위기가정에 생활품 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는 장흥군,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및 조손가정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상담 등 정서 발달 지원, 밀란잔 전달, 영화 보러 가는 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 11개 단체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결연된 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생활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등 정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장흥=김도영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